

너 때문에 울고 웃고 프로야구 천적드라마

올 시즌에도 '천적 관계'에 울고 웃는다. 주말 두산전 2연승으로 기세 좋게 고척으로 간 KIA 타이거즈는 지난 7일 넥센 히어로즈에 1-9패를 당했다. KIA만 만나면 펄펄 나는 넥센 이정후가 투런 포함 4 안타 행진을 하면서 헥터에게 5연패를 안겨줬다. 광주 서석초에서 야구를 시작한 '바람의 손자' 이정후는 대표적인 KIA 킬러 중 한 명이다.

고졸 신인이었던 지난해 그는 KIA전에서 63타수 25안타, 0.397의 타율을 찍었다. 2017 신인왕을 거머쥔 이정후는 올 시즌에도 29타수 15안타, 0.517의 타율로 천적 면모를 보인다. 반면 LG와의 10경기에서는 단 2개의 안타에 그치며 타율이 0.162에 불과하다.

이날 경기를 통해 넥센 좌완 이승호도 새로운 '호랑이 사냥꾼' 후보로 떠올랐다.

KIA가 2017년 2차 1지명으로 영입한 이승호는 지난해 김세현과의 트레이드를 통해 넥센 유니폼을 입은 고졸 2년 차 투수다.

팔꿈치 수술 여파로 올 시즌 프로에 첫발을 내디딘 이승호는 1-1로 맞선 5회 2사 1·3루에서 선발 한현희에 이어 처음 친정팀과의 경기에 등판, 최원준을 2루수 땅볼로 처리하며 급한 불을 껐다. 6회에도 8개의 공으로 김민식, 안치홍, 이명기를 삼자범퇴로 처리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그리고 6회말 넥센이 김하성의 투런으로 리드를 잡으면서 이승호의 프로 첫 승이 기록됐다.

KIA가 프로야구 미래의 '첫 승'의 제물이 된 것은 올 시즌 처음이 아니다. 삼성의 '야기 사자' 양창섭 앞에만 서면 '중이호랑이'가 된다.

고졸 신인인 양창섭은 프로 데뷔 무대였던 3

넥센 이정후, KIA 만나면 펄펄
올 29타수 15안타 타율 0.517

KIA 한승혁 KT 만나면 에이스

올 시즌 5승 중 4승 거둬

이명기 타율 0.426 기록

헥터 NC전 2승...최다 탈삼진 기록도

월 28일 KIA전에서 6이닝 무실점의 승리투수가 됐다. 이 승리로 양창섭은 류현진(당시 한화)에 이어 고졸 신인 데뷔 첫 경기 무실점 선발승의 주인공에 등극했다. 이후 두 번의 등판에서도 모두 승리를 챙기며 새로운 'KIA 킬러' 탄생을 알렸다. 양창섭이 버틴 17.2이닝 동안 홈에 들어온 KIA 타자는 단 한 명에 불과하다. KIA전 평균자책점은 0.51.

양창섭은 헥터와의 맞대결에서도 완승을 거두며 삼성 악몽을 더해줬다.

지난해 헥터는 삼성과의 5경기에서 3.34의 평균자책점으로 4승 1패를 기록했다. 올 시즌은 다르다. 삼성전 두 경기에서 헥터는 8이닝을 막는 데 그쳤다. 평균자책점은 13.50까지 치솟는다.

한화와의 천적 관계도 뒤바뀌었다. 지난해 헥터는 한화에 3.68의 평균자책점으로 4승 1패를 올렸지만 올 시즌 4번의 등판에서 7.32의 평균자책점으로 3패만 남겼다.

하지만 헥터의 NC 강세는 올해도 변함없다.

2016·2017년 NC전 6번의 등판에서 5승을 올린 헥터는 올 시즌 2승을 추가했다. 지난 7월 11일 최원준의 실책이 발미가 되면서 NC전 첫 패를 떠안았지만, 이날 헥터는 자신의 개인 최다 탈삼진 기록을 12개로 늘렸다. 헥터는 최근



KIA 투수 한승혁



▲ 넥센 타자 이정후



삼성 투수 양창섭

3년간 NC전 9경기에서 2.70의 평균자책점으로 7승을 챙기며 '천적' 본능을 뽐냈다.

부침 많은 선발 첫해를 보내고 있는 한승혁도 kt전에는 '에이스'다.

한승혁은 올 시즌 거둔 5승 중 4승을 kt에 챙겼다. 4경기 평균자책점은 2.86. 대표적인 KIA 킬러로 꼽히는 kt 윤한준과 윤석민이 한승혁에게 각각 7타수 1안타로 부진했고, 박경수도 3개의 볼넷만 골라내는 데 만족하는 등 6타석에서 안타를 뽑지 못했다.

타석에서는 이명기가 kt에 강세를 보였다. 4월 27일 kt전서 3안타와 결승타로 한승혁의 시즌 첫 승에 힘을 보탠 이명기는 올 시즌 kt에 0.426의 타율(61타수 26안타)을 기록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류현진, 메이저 복귀 한걸음 가까이

마이너리그 재활 등판 5이닝 1실점 ... 2경기 방어율 1.00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두 번째 재활 등판에서도 호투를 펼쳐 빅리그 복귀에 청신호를 켜다.

류현진은 8일 미국프로야구 트리플A 경기에 구단 산하 구단인 오클라호마시티 다저스 소속으로 리노 에이스즈(에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산하)전에 선발 등판해 5이닝 5피안타 3탈삼진 무사사구 1실점으로 호투했다.

이날 투구 수는 71개였고, 그중 51개를 스트라이크로 쏘아 넣었다.

류현진은 3일 싱글A 경기에서 부상 후 처음으로 실전 테스트를 치러 4이닝 2피안타 무실점으로 합격점을 받았다.

당초 그는 더블A 경기에 등판할 예정이었지만, 다저스 구단은 컨디션이 충분히 올라왔다고 판단해 트리플A에서 투구하기로 갑작스럽게 결정했다.

5월 3일 메이저리그 에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경기에서 왼쪽 사타구니 근육이 찢어진 류현진의 올해 빅리그 성적은 6경기 3승 평균자책점 2.12다.

류현진은 트리플A 타자를 상대로 큰 문제 없이 구위를 점검했다.

1회말 1사 후 크리스 오웬스에게 단타, 크리스티안 위커에게 1타점 2루타를 내준 류현진은 1사 2루에서 내야 땅볼 두 개로 위기를 넘겼다. 2회말 1사 후 이날 경기 첫 탈삼진을 기록한 류현진은 2사 후 알베르토 로사리오에게 단타를 내준 뒤 테일러 클라크를 땅볼로 잡아냈다.

류현진은 3회말을 3자 범퇴로 넘긴 뒤 4회말 안타 2개를 내줘 1사 1·2루 추가 실점 위기를 맞았다. 여기서 네그론을 다시 헛스윙 삼진으로 처리한 뒤 내야 땅볼로 위기에



서 탈출했다.

5회말을 공 9개로 막은 류현진은 0-1로 끌려가던 6회말 마운드를 짙어 던져 넘겼다. 팀은 2-8로 졌고, 류현진이 패전투수가 됐다.

오클라호마시티 구단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 "타자 친화적인 환경에서 땅볼 8개와 뜬공 3개를 유도하며 효과적으로 5이닝을 던졌다"고 호평했다.

트리플A 첫 등판에서 호투한 류현진은 앞으로 1~2차례 더 마이너리그에서 공을 점검한 뒤 빅리그 복귀 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정현, 조코비치와 재회 무산

등 통증에 로저스컵 출전 포기...27일 US오픈 출전도 불투명

정현(23위·한국체대)이 등 부위 통증으로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로저스컵(총상금 531만525달러) 출전을 포기했다.

정현은 8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진행 중인 대회 이틀째 단식 1회전에서 올해 Wimbledon 우승자 노바크 조코비치(10위·세르비아)를 상대할 예정이었으나 등 부위 상태가 좋지 못해 코트에 나서지 않았다.

5월 초 발목 부상으로 2개월 정도 공백기를 가진 정현은 지난달 코트에 복귀, 애들랜타오픈 8강과 시티오픈 16강 등의 성적을 냈지만 이번엔 등 쪽이 말을 듣지 않았다.

조코비치는 정현 대신 '라키 루저' 자격으로 나온 미르자 바시치(84위·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2-0(6-3 7-6

<7-3>)으로 꺾고 2회전에 올랐다.

정현은 이로써 이달 말 개막하는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 US오픈 전망도 어두워졌다.

1월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호주오픈에서 4강까지 오른 정현은 이후 프랑스오픈, Wimbledon에는 부상 때문에 출전하지 못했다.

정현의 매니지먼트 회사인 IMG 코리아 관계자는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다음 대회 출전도 현재로써는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현은 12일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개막하는 ATP 투어 웨스트민 앤 서던오픈에 출전할 예정이다.

US오픈은 27일 뉴욕에서 막을 올린다.

/연합뉴스

석현준, 프랑스 리그앙 랭스로 이적할 듯

프랑스 프로축구 트루아에서 뛰던 공격수 석현준(27)이 스타드 드 랭스로 곧 이적한다고 프랑스 언론이 보도했다.

프랑스라디오 RMC 스포르 등 복수의 언론은 석현준이 7일(현지시간) 랭스에서 메디컬 테스트를 받았으며 이적이 임박했다고 전했다.

이적료는 350만 유로(약 45억5000만원)로 추정됐다.

석현준은 19살이던 2010년 네덜란드 아약스에 입단하며 유럽 무대에 진출한 후 네덜란드와 포르투갈, 사우디아라비아의 여러 구단을 거쳤다.

2016년 포르투갈 FC포르투에 입단한 후 프랑스 리그앙(1부 리그) 트루아로 옮겨 지난 시즌 26경기에서 6골을 넣었으나 트루아가 2부 리그로 강등되면서 이적 전망이 나왔다.

당초 리그앙 양재 이적이 유력하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지만 석현준의 수술 전력 등을 비롯한 문제들로 양재행이 무산됐다고 RMC 스포르는 설명했다.

랭스는 프랑스 북부 랭스를 연고로 1910년 설립된 팀으로, 1·2부 리그를 오가다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 우승해 다시 승격했다.

/연합뉴스